대전중부교회
· 특집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꿈" · 2011 Spring 4th

함께 With



Contents _ *Spring* 2011



COVER STORY

이 손은 무엇인가
우리 맞잡은 이 손은 무엇인가

내 손은 너에게 무엇인가
네 손은 나에게 무엇인가

네 손에 붙들린 내 발은 무엇인가
내 손에 붙들린 네 어깨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꿈"

늙으신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6

가정이 먼저다 8

우리 가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4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20

늘 새롭게 늘 행복하게 24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목장탐방 28

비전 공동체 고등부 32

우리 힘 우리 희망 36

지금 선교지에서는 _ 싱가폴 40

멀리 멀리 갔어도 44


08


48


28


64

함께 4호 _ 봄호
발행일 : 2011년 5월 21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장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배영미, 신신혜, 최정은
디자인 : 김성범, 윤수연
발행부서 : 문서홍보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금강 따라 대청호를 바라보며 48
테마가 있는 여행_그림이 있는 정원 52
기독교 동아리를 소개 합니다 _ 보건대 DFC 56
향기 가득한 골목 60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64
이단탐구_신천지(2) 66
나의 삶 나의 신앙 70
사모의 글 74
이런 일 저런 일 76
내 솜씨 우리 가족 83



목양실 러브레터

작은 일에 충성하라!

글 · 조상용 목사(대전중부교회 담임)

한 청년이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날 따라 손님도 없고 해서 무료하게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청년을 불러 진열대 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을 보기 좋게 정돈하라고 시켰다.

"그곳에는 고작 음료수 두 병 밖에 없는데요?" 청년이 볼멘소리를 하자, 주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고작 두 병이라니? 그 두 병은 음료수 한 박스에서 스무 병을 팔고 남은 것이다. 지금까지 판 것은 원가에 해당하고, 그 두 병을 마저 팔아야 네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고작 두 병이라고 말하다니!"

이 이야기는 유명한 지그 지글라(Zig Ziglar)의 젊은 시절 일화이다. 그 때 그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후에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작은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큰 일을 이루는 첫 단추다. 나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건물이 내려앉고, 다리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을 무시한 인재(人災)인 경우가 많다.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작은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큰 일을 이루는 첫 단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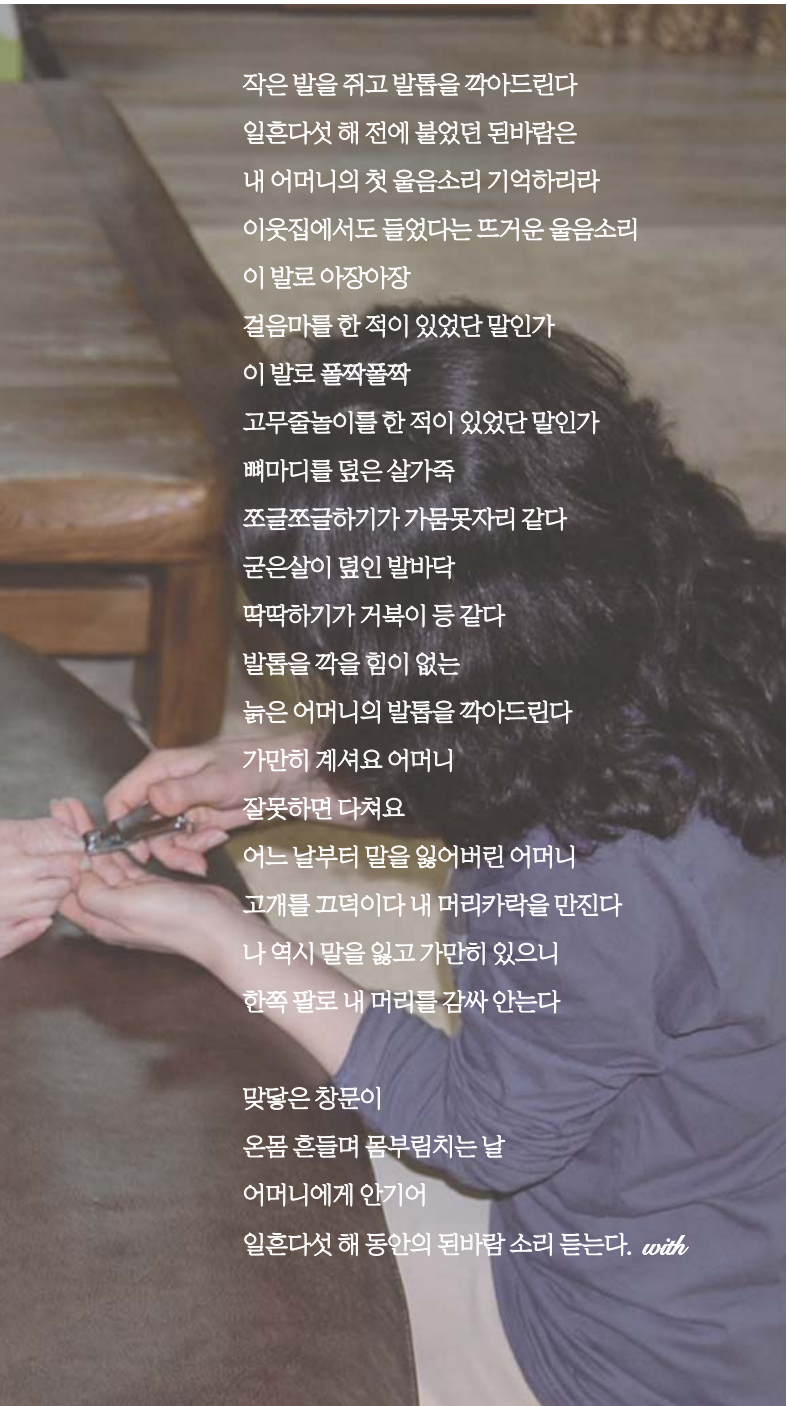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원리는 성경에도 나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누가복음16:10) 이렇게,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됨됨이를 결정한다. 다윗은 성실히 양떼를 돌보다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낚는 일을 하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자. 자신이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사람이다. *with*



늙으신 어머니의 발톱을 깍아드리며

시인 · 이승하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깍아드린다
일흔다섯 해 전에 불었던 된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뭄못자리 같다
굳은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을 깍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깍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일흔다섯 해 동안의 된바람 소리 듣는다. *with*



‘가정’이 먼저다

글 · 배영미 기자

"고민하나 마나 가정이 먼저지요. 가족 없이 어떻게 자신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우선이죠.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데……."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지. 사회생활 한답시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돈 번다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가정이 먼저냐? 사회생활(직장, 학교, 친구, 취미 등)이 먼저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말한다. 나의 질문이 무색하리만치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만큼 실제로도 가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은 없으시겠네요?"

"가정이 우선인건 분명한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보면 그게 생각대로 잘 안돼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네!"
"고3까진 대학 가려고, 대학생이 되어선 친구들, 동아리활동, 스펙 쌓기, 취업준비로 바쁘네요. 이젠 가족들과의 시간이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구요."
"부득이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좀 참아줘야지.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건가? 가정을 지키려니 야근도 하고 몸이 축나도록 거래처 사람 술 접대도 하는 거지! 우리도 힘들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치열한 생존경쟁과 분주한 현대생활,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의 기회 향상 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선순위에서는 차선으로 미루도록 합리화 시키고 있다. 지금 수많은 가정이 하숙집처럼 변하고 있다.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 최후의 보루 정도로 전락하다 못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







1. 이야기하나 어느 가장의 고민

인터넷 상에서 가장들의 대화가 한참이다. 이 날의 대화는 업무 특성상 잦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정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다는 어느 IT 개발자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 1시가 돼서야 귀가 한 개발자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설움에 북받친 울음에 직업 뿐 아니라, 삶의 회의를 느낀다며,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목수 일을 하는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의 고민에 많은 남편들이 비슷한 자신의 경험들을 쏟아냈고, 현실적 한계에서 겪는 고충들을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많은 남편들의 댓글에서 이 시대 가장들의 삶에 지친 어깨와 눈물들을 엿볼 수 있었다.

훈훈하던 대화는 이내 현실에 대한 수용 자세와 극복 방법들로 전개되면서 이견으로 인한 격한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의 토론이 격렬해질수록 가장들이 겪는 가정과 현실 사이의 고민의 강도가 가족들의 불만 못지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깐의 언쟁이 있었지만 모든 가장들의 결론은 하나였다.

“힘내십쇼. 파이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부터라도 노력하고 다시 한 번 힘내자는 그들의 다짐에 가슴이 짠하다.





2. 이야기 둘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

「간디 나의 아버지」라는 영화가 있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으로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Gandhi)생애의 이면을 그린 영화다. 기존의 간디 영화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소위 20세기 최후의 성인이라는 위인의 삶을 다룬 것과는 달리, 간디라는 아버지의 명성의 그늘에서 오히려 혹독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장남 하릴랄의 삶을 통해 생활인 간디의 일상을 재조명 하고 있다.
간디는 관념적 지식축적에만 치중하는 교육을 비판하며, 자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깨달음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그의 교육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한 후원자가 간디의 친자만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기부했고, 평소 아버지와 같은 변호사를 꿈꾸던 하릴랄은 영국유학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알 리 없는 간디가 후원금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하릴랄의 꿈은 무참히 깨어지고 만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대신 독단적인 양육 방식 속에서 성장한 하릴랄은 아버지의 사상에 동참하는 삶과 자립적인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권세력과 반대세력에게 이용당하면서 사기꾼으로 몰리는가 하면, 간디의 이름에 먹칠하는 불미스런 사건들로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실패를 거듭하다 아버지와 결별한 채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마감하고 만다.
결국 간디는 나라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들을 구하지는 못한 것이다.
영화는 대단한 아버지 간디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감추어진 가족들의 희생과 맏아들 하릴랄의 어두운 그림자 인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세상 어떤 것도 가족의 행복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3. 이야기 셋 신앙생활과 가정



"가정은 뒷전이고, 때도 없이 종교 활동 한다고 집을 비우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결국 끝이 안 좋더라구. 그 녀석은 딴 살림을 차렸고, 결국 헤어졌어. 애들만 불쌍하지."

남편의 외도가 먼저인지,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이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렸다는 택시기사님의 친구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상담자의 경우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6.0%)이 전년(1.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목 할 것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져 갈등하는 사례보다, 아내가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정과 신앙생활 간의 우선순위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이 해결해야 할 난해한 과제와도 같다.
한국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한평생을 제자훈련에 힘쓰시던 고(故) 옥한흠 목사 또한 이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음을 저서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에서 고백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사고에 젖어있던 탓에 어느 사이엔가 교회 생활보다 가정 생활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라난 신앙 환경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첫째는 하나님과 나, 둘째는 가정과 나, 셋째는 교회와 나)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삶의 우선순위 또한 ①하나님→ ②가정→ ③교회 순이 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를 교회보다 가정에 더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책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책임보다 더 앞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때문에 가정이 먼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 생활에 충실치 못하면서 교회 일에 동분서주하는 열심은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이라며, 모든 신앙인들이 가정과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고인의 당부는 생전에 그가 보여준 소신 있는 신앙의 모범 때문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4. 이야기 덧...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입각한 가정의 우선순위가 비단 성경의 가르침만은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또한 부분적으론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비록 출발점과 기본 근간을 각각 '하나님 : 자신'으로 삼는 큰 차이는 있지만 가정과 세상의 우선순위는 동일하다.
일본에 「7전8기회」라는 모임이 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이 재기를 꿈꾸며 지혜를 나누는 모임인데, 어느 날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회원의 80~90%가 부도가 나기 전에 먼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부부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는 별거중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애초에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업에 힘썼지만,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가정이 흔들렸고, 결국엔 사업체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가정의 우선순위 문제는 가정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을 가장 먼저라 생각 할 만큼 가정이 소중해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깨어지고 마는 것이 가정인 것이다. 그러니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성공하라.

삶의 목적이 가족이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가족과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직도 직장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동료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가족들과의 약속을 취소시키거나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취미나 동호회 모임 때문에 기다려지는 주말이 가족에겐 서운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가정의 달 5월, 종교 행사 때문에 정작 내 가족이 들러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with*









아버지학교를 통한 내 삶의 변화

글 · 구회선 집사

아버지 학교를 등록하고 은혜로 수료하게 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 드리며 이 글을 쓴다. 교회에서 아버지학교에 대한 소개와 광고가 나오지만, 나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내 박지숙 집사의 권유로 등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은 최고의 아버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버지 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원망도 했다. 아내의 지속적인 권유와 마음의 부담으로 이상한 의무감에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였다.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어색하기만 한 상태로 1주차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나는 올바른 가장이 가야 할 길과는 정반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녀와의 대화는 설명과 이해가 없는 명령식의 짧은 대화였다. 아내에게도 내 방식대로 호칭하는 것은 물론 정말 중요한 부부간의 대화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어이 밥줘" "자자" "갔다 올게" 그것이 다였다.

나의 가정생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처를 아내와 자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신앙생활에도 이어져서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명령하면 잘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신앙의 교사였고 표본이었다. 오로지 나만의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길을 거침없이 명령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 오만하고 교만한 신앙의 길잡이였다.

나 자신을 하나하나 발견 해 갈 때 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아픔을 지속적으로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권면을 받고,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내와 자녀는 나의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나의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격체인지 알게 되었다. 더불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 학교 과정 내내 새로운 삶에 대한 발견으로 설레임과 기쁨으로 다가왔다.

조장님이 반겨주고 스탭들이 허깅하면서 맞아주니 나의 마음은 어린 아이처럼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 학교를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왔다. 숙제도 확실히 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매일매일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허깅도 했다. 아버지의 따뜻함과 가장이라는 따뜻함이 스스로 느껴졌다.

39기 아버지 학교 5주차에 아내를 초청하게 되었다. 세족식을 통해서 아내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는데, 내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지금까지 아내에게 준 마음의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정말 뜨거운 눈물로 나의 잘못을 씻는 듯 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멋있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보리라 마음 먹었다.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가정들이 치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다. *with*



"행복한 부부세미나"를 통한 우리 가정의 변화





글 · 양길용 집사

행복한 부부 세미나! 나에겐 참 멀게만 느껴졌던 행사였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행사나 세미나,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우리 부부가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30여년을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올 때 마다 항상 노력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외아들로서 혼자만 누리는 이기적인 성격이었고 나는 맏딸로서 동생들을 챙기며 살아온 환경이었기에 서로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부는 얼마 전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지방에서 올라와 있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담임목사님의 행.부.세 참여권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남편이 과연 갈까? 라는 생각과 회비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권사님께서 함께 가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권유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허락에 반신반의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행.부.세의 시작은 두 가정의 부부가 1박2일로 안산 동산교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장소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에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음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포천에 호텔 식으로 꾸며진 산골짜기 공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루하게 교육할 것인가 참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환영해 주는 봉사하는 스텝들로 가득 차서 행복한 곳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기쁘고 감동을 받은 것은 행.부.세를 찾아간 어색한 부부들을 섬겨주는 스텝들이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와 친절은 어디를 가도 그런 스텝들과 봉사자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자 조상용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손수 스텝이 되어 식탁 의자를 빼어 주시며 부부들의 시종을 들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이 또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한 우리 이성희 권사님과 사모님은 어디에서 봉사하시는지 쉬지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다 공개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우리 남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부.세에서의 프로그램은 참 짧은 세미나였지만 부부가 회복되고 감동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다녀온 후 남편은 교회에 있기를 더 즐거워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 대화도 잘하고 뭔가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부.세를 다녀오기 전 남편은 가정에서도 항상 권위 의식이 있어서 표정만 바라보아도 어렵게 느껴졌고 무뚝뚝한 남편이 힘들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왠지 남편이 변하는 모습에 참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부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행.부.세를 다녀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부.세를 가기 위해서 망설이는 부부가 있다면 한 번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가정의 행복과 부부애를 느끼실 겁니다. *with*

어른이 된다는 것.

글 · 김재범

3년 전이었다. 6월의 어느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 비몽사몽 속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때 아내가 다가와 살며시 말해주었다.

"재범씨, 아빠 될 것 같아."

그 해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어가던 해였다. 연애기간까지 포함하면 16년 정도를 사귄 우리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둘만의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만족하며 살자는 것이 부부의 소박한 기대였다.

그렇게 덤덤한 나였지만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우리는 무척이나 기뻤고 가족친지들과 주위에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셨다.

바야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옛말을 종종 생각해 본다.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45년 동안이나 아이로 살았던 셈이다. 아직도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설프게나마 느껴지는 것이 있다.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 평화롭게 잠든 모습, 심지어는 엄마에게 떼쓰는 모습에서 조차도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그토록 무한한 사랑을 받는 혹은 받았던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는 나 자신의 아이를 만나고 나서야 인간 개개인이 왜 모두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계를 위한 노동과 자녀양육의 의무를 지워주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인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이는 이제 만 두 살이 되었다. 어느새 우리 부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가끔 이야기한다. 그 중에 한 가지 이것만은 꼭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다.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믿음이나,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운 다윗과 같은 용기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과 네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사람은 사랑 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큰 기쁨이 된 선물! 내 아들! 그 아이로 인해 비로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새로운 울타리를 이루고 행복을 키워가고 있다. *with*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글 · 래리 발라드
역 · 유정희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 1:27~28).

이는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닮은 개인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들이다. 그런데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나타내는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시다. 또한 "예수님을 본 자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요 14:9).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최초의 가정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셨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셨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를 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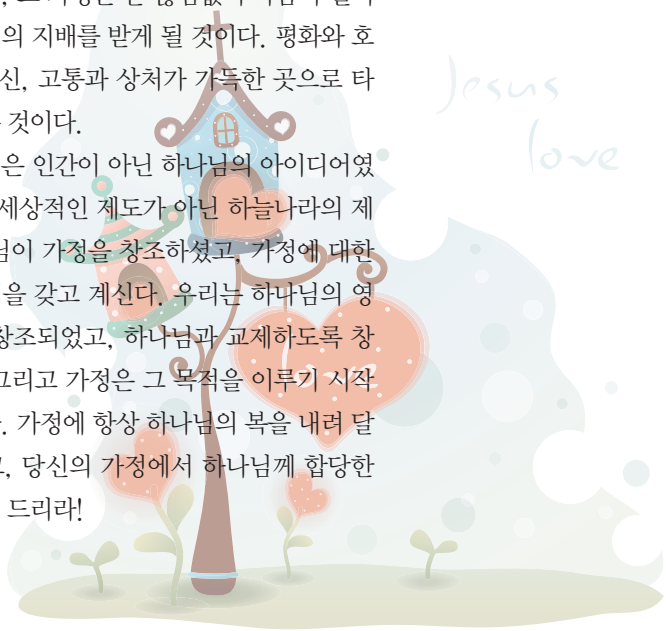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면서 최초의 결혼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창 1:28,31).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친밀히 교제하셨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그리스도인 가정과 세상의 비그리스도인 가정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없으며, 그 가정은 곧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기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평화와 호합(互合) 대신,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곳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이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결혼은 세상적인 제도가 아닌 하늘나라의 제도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에 대한 확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가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곳이다.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복을 내려 달라고 구하고, 당신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리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최초의 부부에게 임무와 소명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온 세상에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생육하라는 명령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를 낳아 그 후손이 온 세계에서 살게 하라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 즉,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바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은 지금도 똑같다.

+ 목적과 사명

생육하라는 명령은 또한 열방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뜻이다. 각 그리스도인은 영적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 15:8)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이 한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의 복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길 원하신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과 열방에까지 전해지기 바라신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이 약속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인가! *with*

〈'가족,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에서 발췌



「금혼 부부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 53년 결혼생활

글 · 편봉달 원로장로
김금화 권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부족한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공기가 맑고 산책하기가 좋아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시편 1장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구절을 저 스스로에게 뿐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피아노를 치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은 '94장, 305장, 314장, 384장, 393장, 424장, 425장, 438장, 450장' 등이며, 독창곡으로는 '14장, 150장, 394장, 447장', 합창곡으로는 '89장, 325장, 369장, 413장, 525장' 등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일일이 나열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의 찬양으로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악상이 머리에서 떠오르면 오선지에 악보를 적어 곡을 지어 보기도 하는데, 그 곡이 좋으면 바로 제가 작곡한 곡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 딸들과 사위들이 오면 창작한 곡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숭문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년 과정을 졸업하고, 1958년 4월 12일 첫 발령지인 제천중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1999년 8월 31일 충북 옥천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기까지 40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중 · 고 음악교사로, 연구사로, 교감, 교장으로 근무하며 저는 2세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시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교회는 청주중앙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신앙생활하며 안수집사로 장립 받았고, 직장 이동으로 대전중부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신앙생활하며 1981년 12월 22일 장로 장립 받고 충성하다가 지난 2006년 1월 22일 원로 장로로 추대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일평생 하나님이 맺어 주신 반려자로 본 교회 김금화 권사와 1958년 10월 17일 결혼하여 53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며 슬하에 1남 4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제 자녀를 소개하면 큰 딸(편흥심)은 성악을 전공하고 목사 사모로 있고(후손은 아들 둘), 사위는 본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대전동부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편흥석 집사)과 며느리(이진형집사)(후손은 2남 1녀)가 있으며, 둘째 딸(편흥재 집사)과 사위(강희완 안수집사, 미생물 유전자 공학박사)(후손은 1남 1녀)가 있으며, 셋째 딸(편흥실 집사)과 사위(건축업 전공)(후손 1남 1녀)가 있으며, 넷째 딸(편흥규 집사)과 사위(충북대 공대)(후손 아들 2명)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하에 1남 4녀를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손자 손녀가 11명이나 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 줄 저는 확실히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 뜨거운 기도의 열매는 유교사상에 젖은 아버지, 어머님을 전도하고, 부모님이 주님 영접 하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룬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신앙 유산으로 후손들과 동생들에게 남겨 주는 것이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며 남은 생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헌신 봉사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해 보면서 이만 나의 부족한 생활을 줄이고자 합니다. *with*

「신혼 부부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문

글 · 조상일 전혜경 부부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생명의 말씀에 손을 얻고 언약한 새 출발! 주님과 멋진 삶을 동행하며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저희 부부는 많은 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혼을 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또한 서로 채워주고 감싸 안기 위해,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제 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조상일 형제는 대학 시절 기독교 동아리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배우자 기도제목을 항상 적어 다니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제목에 응답인 부인 전혜경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기도제목은 스무 가지에 이르렀었는데, 그 중에 전혜경 자매는 무려 19가지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맞지 않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장인, 장모님께서 꼭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이를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 공부하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가진 만남이라 처음 부모님들께 인사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취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뒤 다시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매우 좋아하시면서 결혼까지 승낙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은 건전한 집회를 다니며 서로의 공동 유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커스 집회, 찬양 집회, 흰돌산 수양원, 금요 철야 등에서 함께 찬양단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또한 우린 서로 영적인 교통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서로를 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발을 내딛습니다.

앞서 가신 선배님들의 그림자를 밟으며, 그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교훈 삼아,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매진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기에, 절대 가치와 절대 주권을 주님께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는 세 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교육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우 박사님의 철학관과 교육관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니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자녀교육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새내기 부부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기도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ith*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봄기운을 느끼며 새싹이 파릇파릇 기지개를 켜던 3월의 어느 따스한 금요일, 가양10목장의 목장예배에 참석했다.



'가양10 목장'

글 · 조재란 기자

봄기운을 느끼며 새싹이 파릇파릇 기지개를 켜던 3월의 어느 따스한 금요일, 가양10 목장의 목장예배에 참석했다.

목장예배 장소는 예비 목자이신 정정이 집사님 댁에서 모였는데, 정정이 집사님 가정은 최근에 오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신 하경철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 하경철 성도님은 마음을 다하여 출석하시며 짧은 기간에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간증을 하시어 온 교회를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하셨다.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있는 이자영 집사님이 이 목장의 목자이신데 남편이신 김영채 집사님 또한 전도 열정이 대단하시어 교수로 재직 중이신 폴리텍대학의 학생들을 주일마다 전도하시고 양육하시어 청년부 부흥에 힘쓰고 계시는 가정이시다.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하여 속을 썩었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따님의 사역과 아드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김영자 권사님

늘 미소가 넘치는 얼굴이라 이분을 떠올리면 미소가 생각나는데도 스스로가 부족하시다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신다는 송요춘 권사님

새벽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목장예배를 참석하시게 되었고 요즘은 믿지 않는 남편께서 새벽예배를 가라고 깨워주신다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정지원 집사님

이렇게 다섯 분이 참석하셨다. 나눔을 할 때는 목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과 부족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듣고 있던 목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소망을 준다.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한다면’이란 주제의 나눔을 할 때는 어찌나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한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저런 자랑거리를 이야기 하시는데, 내게는 불만이었던 것이 이분들께는 자랑거리였던 것이다. 그 동안 교회에 대해 이런 저런 불평불만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까지 받았다. 마지막으로 목원들이 모두 손을 잡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도 간절하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다. 특히 이 목장의 목표이자 기도제목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였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미 정정이집사님의 남편이신 하경철 성도님이란 귀한 열매를 얻었고, 그 기도가 계속되는 한 가양10목장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가양10목장의 취재를 통해 나는 은혜와 도전을 동시에 받았다.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에 따라 불만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차이, 그래서 교회를 아름다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은혜와 진정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예배를 보았고 기도로 목원들의 삶이 변화되고 응답받는 목장을 체험한 한 목장의 목자로써 도전을 받았다. ‘함께’지 수록을 위한 취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체험이었다. 가양10목장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 목장을 통하여 우리교회 안에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with*


1


2


3


4


5


6

1

정정이 집사님

눈물의 기도와 끈기로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어낸 승리의 여인

2

김영자 권사님

아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아기들의 이름을 거의 알고 계시는 기도중심 권사님

3

정지원 집사님

아직도 문학소녀의 꿈이 숨어 있어 에세이 한편이 스쳐 나올 듯한 영원한 소녀 집사님

4

이자영 집사님

늘 에너지가 넘치는 믿음의 여전사, 우리 교회 만능 엔터테이너!

5

송요춘 권사님

인자한 미소와 밝은 표정으로 목장의 모든 가정을 환하게 만드시는 미소 비타민

6

정은아 성도

우리 교회 희망천사, 준영이 엄마



VISION

비전 공동체 고등부

글 · 임규혁 담당목사

고등부를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를 한마디로 무어라고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다 '비전 공동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다른 무엇보다 꿈 많은 나이이고 더 큰 꿈을 바라고 준비해야 하는 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부가 비전 공동체이고 또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함을 느낍니다.



고등부 가장 중심에 있는모임은 주일 예배입니다. 9시에 드려지는 예배라 조금 이른 시간에 모이기가 수월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예배 10분 전 선생님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예배와 오늘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찬양단의 힘있는 찬양으로 시작되는 예배는 우리 모두를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지체들의 헌신으로 예배는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고등부를 이끌어 가는 힘은 바로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늘 학생들의 편에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쉼 없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고등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아버지 같은 인자한 미소로 고등부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주시는 인치경 부장님, 그 인자한 미소에 넘어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장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교사기도회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모여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 '책임 맡은 담당 교역자로서 자랑스럽고 뜨거운 기도 덕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등부를 이끌어 가는 힘은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있습니다. 섬세함으로 고등부를 이끌어 가는 회장 박상규(고2)와 늘 그 자리에서 빛나는 부회장 김나형(고2), 그리고 교회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전도대장 총무 김다빈(고2), 늘 예배시간에 영감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주도해 가는 에베네도 찬양단 리더 이문주(고2), '고등부의 모든 영상은 내손에!' 외치는 영상부장 권영은(고2), '썰렁한 고등부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다!' 친교부장 탁혜영(고2),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손, 예배 때마다 주보를 만들고 있는 편집부장 허세진(고2), 이들이 없는 고등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중부교회는 찬양의 메아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바로 고등부 찬양단 에베네도의 찬양 연습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느랴 시간이 없는 가운데 토요일 모여 주일예배에 함께 부를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단 한사람 한사람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의 찬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찬양에 목마른신분들 고등부로 오시면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부를 움직이는 힘은 토요기도모임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시에 고등부 친구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현재는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지체들이 모여 기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는 제자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반에 10명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중요하기에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모여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부의 표어는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으라” 입니다. 올해 고등부 목표는 100명의 신실한 주의 친구들이 주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등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with*





하늘나라의 스타 "목요전도대"

글 · 조숙희 전도사



1995년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몇 분의 성도가 매주 목요일에 모여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목요전도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루도 쉼 없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품은 성도는 점차 늘게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까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사역을 보강하기로 하고 조직을 세우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전도사역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훈련을 받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다른 교회 전도대들이 우리가 개설한 전도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도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목요전도대"들은 부침개전도를 비롯하여 아파트전도, 생활전도, 병원전도, 길거리 시장전도, 건널목전도 등 7개 조로 구성되어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양동, 비래동, 송촌동을 중심으로 동구전체를 복음의 사명으로 전도 한다.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는 "목요전도대"인 것이다. 순도 높은 집중력을 모아 복음전도에 앞장서 삶의 누수를 방지하고 언제나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위대하고 영광스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교회전체로 볼 때는 2%에 불과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요전도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기환 권사 4조

"목요일이면 이자영 집사님을 비롯 박종순 집사, 송정숙 집사님과 더불어 기도로 전도준비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신 휴 아파트까지 걸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 4조는 웃음 가득한 전도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의 간증을 듣고 감사하며 그 마음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영숙 집사 4조

"우리 2조는 교회 아래 신도시장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탁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2조 조원들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종옥 권사 7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 목요전도 7조 특공대를 소개합니다. 우리 특공대는 가양감리교회부터 축협(농협)지역으로 주로 전도하고 있으며 매주 5군데 노인정에가서 그 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 집 한집 방문도 하며 거리에서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 열매도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7조 특공대들은 목요전도팀이 방학을 해도 6명의 전도대원이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내일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후남 권사 3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가득히 넘쳐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화자 집사님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계신 천사같은 최순임 집사님과 함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재 방문하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하며 아름다운 복음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주께 인도하여 하늘 생명책에 많은 기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하!하! 할렐루야!!! 1조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송경호 집사님 최수녀 권사님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1조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목요전도대 1조는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주신 달란트와 귀한 사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까지 방황하는 생명을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1조가 되겠습니다."

손석남 집사 1조



최재심 권사 6조





"저희 6조 목요전도대는 박순애 권사님과 김순녀 권사님의 열정이 넘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래스토아를 중심으로 전도 하고 있으며, 박순규 권사님의 뒷받침으로 힘을 모아 전도에 힘쓰는 열정 가득한 조입니다.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가족 김경덕 집사

"중부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 신도아파트에 잠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먼 길을 돌아 고향 교회에 다시 돌아온 느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정 넘치는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인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새가족 이윤경 성도

"먼저 중부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에서 이사오면서부터 섬길교회를 찾던 중 중부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중부교회 4대목표와 8대 사역에 목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새가족으로 조금 낯설고 힘들지만 조상용 목사님의 설교에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알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참 잘 선택했다는 마음과 함께 여러모로 저의 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새가족 스탭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하경철 성도

"나의 미움으로 인하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 조차도 힘들게 하였으나 미움이 부질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th*

대전 중부교회와 방콕 싼띠팝교회

글 · 김정배 선교사


1


2


3





1. 이명국 선교사가 인도하는 트르웨이 태국인 성도
2. 던몬교회 모습
3. 어린이를 가르치는 캄 사모
4. 던몬교회 개척 당시 김재정 선교사
5. 즐거운 식사 시간

태국선교에 헌신한 대전중부교회

1989년 대전 중부교회는 저희 가족을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단독선교사(중부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파송한다는 뜻)로 파송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부교회는 어느 누구도 태국을 다녀 온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태국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불교국가라는 점에서 모두가 태국선교에 헌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국에 교회를 개척

1992년 중부교회는 태국 방콕에 싼띠팝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태국어를 습득한 후 교회개척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교회개척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고자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언어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하기까지는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의 어눌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태국선교의 첫 열매이자 태국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수완씨 가족의 회심

우리가 수완씨를 만난 것은 방콕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장소를 임대하고 내부시설을 할 때였습니다. 수완씨가 그 공사를 맡았습니다. 수완씨는 술을 친구삼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2층의 마루공사를 하는데 마루바닥에 사용될 목재가 너무 약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완씨에게 "사람이 많이 모일텐데 마루가 무너지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수완씨는 "마루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곳에는 자기가 항상 앉아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수완씨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수완씨의 집을 찾아갔고, 주일에는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교회에 가기까지 기다리다보니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끈질긴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결국 수완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본 아내 아농씨와 세 딸도 뒤이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1995년에 중부교회는 태국 부리람에 던몬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던몬지역이 바로 수완씨의 고향이며 수완씨가 바친 땅에 복음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수완씨는 현재 방콕 싼띠팝교회의 안수집사로 섬기며 온가족이 믿음의 헌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예배드리는 수완 안수집사
7. 김정배, 이명국 선교사, 상희의 예배 특송

태국 77개도에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방콕 싼띠팝교회로부터 시작된 중부교회의 태국선교는 1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싼띠팝 교회단체를 이루었습니다. 태국의 12개도에 14개의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모체교회가 되었습니다. 방콕 싼띠팝교회를 중심으로 태국의 77개 도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비전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부교회의 남은 사명

방콕 싼띠팝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중부교회의 남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콕 싼띠팝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태국 77개도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태국복음화의 센터로서 교회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 이사를 하였고 이사할 때마다 교회에 나오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부교회를 통해 시작된 방콕 싼띠팝교회가 2012년이면 설립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콕 싼띠팝교회가 교회당을 마련하면서 태국과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들고 힘차게 뻗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원해봅니다. *with*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글 · 송영신(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

이제는 아련해 질만도 한 7여 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 오릅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뒤로하고, 출국 심사대의 문이 닫힐 때 꾹꾹 참았던 눈물이 제어할 수 없이 흘러내렸던 그 때, 처음으로 제가 '집'을 떠나오던 때였습니다. 독일로 향하는 10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눈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집을 떠난 아쉬움과 함께, 내 앞에 펼쳐질 생활과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늘푸른 청년부 간사님이셨던 분께서 제가 독일유학을 간다고 말씀 드리자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신아, 네가 비록 너의 계획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란다." 사실 지금까지 그 간사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순간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교회와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이루고픈 학문의 열망으로 나름대로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철저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학업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한, 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독일로 오기 직전의 저의 신앙의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영점을 지나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지만 봉사가 일이 되다 보니 개인적인 신앙상태는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오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독일에서도 교회는 다니되, 조용히,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웬만하면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은 피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저의 결심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지금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의 청년회가 막 모이기 시작하고 구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변의 상황들이 낯설어 분위기 파악을 하는 중 이었는데, 어느 주일, 청년회 정기총회에서 아주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땅을 밟은 지 한달 밖에 안 된 제가 청년회 총무로 일 년 동안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때 저에게는 회칙 상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라면 이 일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하나님 일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교회 청년회 임원이라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을 놓고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아이처럼, 저는 입학한 학교에서도 아직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이해도 되지 않는 수업이지만 감사하게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독일 친구가 조심스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 동안 너도 나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데, 너….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니?" 독일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며 친해지려고 할 때도 나이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법 용기를 내어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 친구에게 대답해주었습니다. "나, 79년생이야" 그 친구는 놀라면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79년생인데!", "그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저는 속으로 '야호!' 를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가운 첫인상을 지닌 독일 친구들과 무척 서먹한 상태였던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동안 학교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다른 친구들과 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저 중국애(보통 동양인은 우선 중국인으로 생각함) 도대체 몇 살인데 대학에 들어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의 아담한 체구 덕분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대학을 일찍 들어온 '천재소녀' 쯤으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덩치 큰 독일 사람들 틈에 묻혀서 스스로도 찾을 수 없었던 존재감을 그 친구들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마시는 커피의 농도가 점차 진해짐에 따라 저의 유학생활도 독일의 분위기 속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석사논문을 쓰는 시기가 다가오고, 또 졸업식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독일 대학은 졸업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으며 멋진 학위복도 입지 않고, 조촐하게 학부 또는 학과 졸업생들이 모여서 교수님이 주시는 학위 증서를 받습니다.



다행히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가족과 친구들도 초대하여 졸업을 축하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기쁨을 즐길 겨를도 없이 저는 취업과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은 물론 박사과정의 자리를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계속 학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석사논문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석사논문뿐 아니라 박사과정의 전공분야도 '노인(노년)'에 대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좋은 담당 교수님과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실습과 봉사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을 통해 전공과 논문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저에게 이 길을 가도록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중학교 때 어렴풋이 '복지'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셨고, 대학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셨으며, 때가 되어 일련의 과정들을 모으셔서 저를 지금 이 곳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유학을 하며 독일에서 살았지만 사실 먼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출발점에 서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일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창 12: 1, 4)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의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때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선 이곳이 광야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딸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가족, 주일학교 시절의 '영신이'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중부교회 성도님들, 마치 가족과 같이 이곳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복흠(Bochum) 한인교회 가족들 덕분입니다.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늘 기도합니다. *with*



금강 따라 대청호를 바라보며

글 · 사진 김용수 편집장

금강은 비단결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비단 금(錦)을 쓴 것이라 생각되는데, 무주에서 영동, 옥천을 지나는 금강 길을 사계절로 보면 과히 비단 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전 시민에게 대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 대덕연구단지, 정부3청사, 계룡대, 엑스포과학공원 등은 최근에 정부의 계획으로 조성된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실정이다. 지리적으로는 금강, 금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청호가 있다. 대전은 분지로 대전 둘레를 크고 작은 산들이 둥글게 감싸고 있다. 최근에는 둘레길 열풍에 힘입어 대전시에서도 대전 둘레의 산들을 이리 저리 엮어서 대전시 둘레길을 만들고 있으며, 가양동, 비래동, 송촌동 등 우리 생활권 뒷편의 계족산도 그 중 하나이다. 계족산은 계족산성을 중심으로 발달된 여러 등산로와 임도를 엮어서 어디 내 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둘레길을 가지고 있다. 잘 복원된 계족산성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웅장하게 대전의 뒤를 받쳐 주는 호수, 80킬로미터의 둘레를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려야 들여다 볼 수 있는 우리나라 3번째 크기의 인공호수가 대청호이다. 대청호는 대전지역의 식수를 제공하고, 공업용수와 발전, 홍수조절, 관광 등의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으로 태생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 역할을 하던 청남대가 일반에 공개되어 멋있는 풍광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하루를 보내다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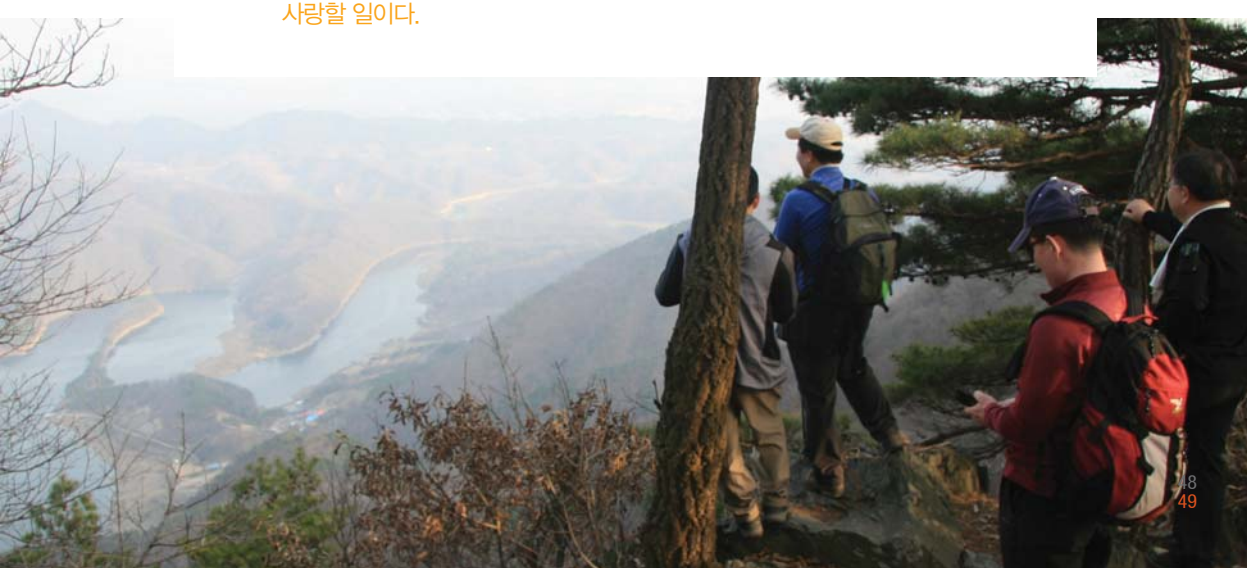


금강은 비단결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비단 금(錦)을 쓴 것이라 생각되는데, 무주에서 영동, 옥천을 지나는 금강 길을 사계절로 보면 과히 비단 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백제의 고도인 웅진과 사비를 지나 서해 바닷물에 사계의 빛깔을 하늘 아래 담아 풀어 놓으니,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보면 금강이 되었건, 대청호가 되었건, 개념적으로만 생각되게 되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가 어렵다. 맛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하나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고, 하나를 먹더라도 곱씹으며 먹어야 제 맛이다.

지난 3호에서는 가양공원에서 계족산을 넘어 추동 국화축제까지 살펴보았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흐드러지던 국화는 새봄을 맞아 여린 싹을 내고 있으니 국화를 기다리기가 아득하다면 이 글을 쓰는 중에 한창인 벚꽃과 산수유, 진달래를 대청호 주변 산야에서 볼 일이다. 옥천이 낸 시인 정지용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 바로 금강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사랑할 일이다.

대청호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는 멋도 상당하지만–필그림에서 커피 한잔 그윽하게 마시고 추동으로 넘어가 신탄진, 문의, 청남대를 거쳐 샘봉산, 회남, 어부동, 구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필그림으로 와서 다시 커피 한잔–, 옥천 추소리에서 이평에 이르는 고리산(고리 환(環)을 써서 환산이라고도 한다) 능선 종주도 참으로 멋스러운 추억이 될 것이다. 옥천에서 대전 가는 길목에 경부고속도로 아래길(군북파출소 앞 이백리삼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여 우측 환평리 방향)에서 출발하여 이평리 버스정류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무난하다. 고리산을 추천하는 것은 계족산은 너무 많이 다녀서 새로움이 없을 것이고, 필그림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면 등산 출발지에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평리로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워낙 띄엄띄엄하게 있어서 자동차 한 대를 미리 이평리로 가져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인 정지용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 바로 금강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사랑할 일이다.







출발에서 도착까지는 약 4시간이다. 내려오는 코스가 올라가는 코스보다 길고 지루하다. 이평에서 환평으로 등산을 하면, 올라가는 코스가 길어지게 되고 경사도 가파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고리산 코스의 백미는 능선에 있다. 진달래 빛깔이 곱게 펼쳐져 있고, 멋스러운 소나무 사이로 대청호수와 옥천 방면의 넓은 평야가 호쾌하게 시야에 펼쳐진다. 대청호반의 푸른 바람과 소나무의 푸른 솔향이 어우러져 능선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다. 이럴 때는 그저 잠시 쉬면 될 일이다. 산에 와서 까지 빨리 내려가서 뭘 하려는 생각은 참으로 중독 중에 중독이다. 일 중독이고 집 중독이다. 가족 중독이고 모임 중독이다. 어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시간이 아닐까?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공동체는 아름답다. 너와 내가 만들어 내는 하모니는 우주 조화의 밑거름이다. 보아라, 새들도 함께 난다. 숲도 소나무만 있거나 원추리만 피어 있지 않다. 중독이 아닌 중화(中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피워낸 최고의 꽃이다.

고리산 코스의 백미는 능선에 있다. 진달래 빛깔이 곱게 펼쳐져 있고, 멋스러운 소나무 사이로 대청호수와 옥천 방면의 넓은 평야가 호쾌하게 시야에 펼쳐진다.



이평리에서 환평리로 다시 나오는 길에는 좋은동산기도원이 있어서 잠시 들러 여유를 찾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룹 모임을 하는 예쁜 기도원이지만 아는 분만 기억하는 아픔이 있다. 오래 전에 초등학교 분교였던 지금의 기도원을 매각하고자 옥천교육청에서 입찰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깝게 낙찰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는 교회가 예쁘고 다양하게 고쳐서 여러 교회와 공동체에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 크게 서운할 것은 없겠다.

귀가 길은 환평리에서 옛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비래동으로 오는 길과 도로 여건은 좋지 않지만 환평리에서 계속 대청호 길을 타고 가면 어부동이 나오고, 어부동에서 대전으로 나오면 된다. 어부동은 송어 요리가 유명한 곳이니 출출한 배를 채우는 것도 좋으리라.

등산을 가기 전에 잠시 벚꽃 지는 운치가 일품인 보건대 뒤의 남간정사를 찾아 사진 몇 컷을 찍고 소개한다. 알베르 카뮈는 '색은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봄의 색은 희망의 어머니 자리로 손색이 없으리라. *with*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 낸 수목원

그림이 있는 정원

글 · 조재란 기자
사진 · 최용필 집사

대학을 다니던 건강한 아들이 친구들과 다녀온다던 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로 전신불구의 상태가 되어 돌아왔다. 아들은 삶의 희망을 놓아 버리려 했고 그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 아들의 취미였던 그림그리기를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붓을 물리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 아들은 나무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무를 보러 갈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나무를 사다가 집 앞 뜰에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주고 꽃도 피우고 연못도 만들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의 숲을 만들어 주는데 쏟아 부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이란 수목원이다.

'그림이 있는 정원' 수목원 단지 안내도



☼ '그림이 있는 정원' 의 전경입니다.
곳곳에 다채로운 원내시설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다채로운 수목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채로운 문화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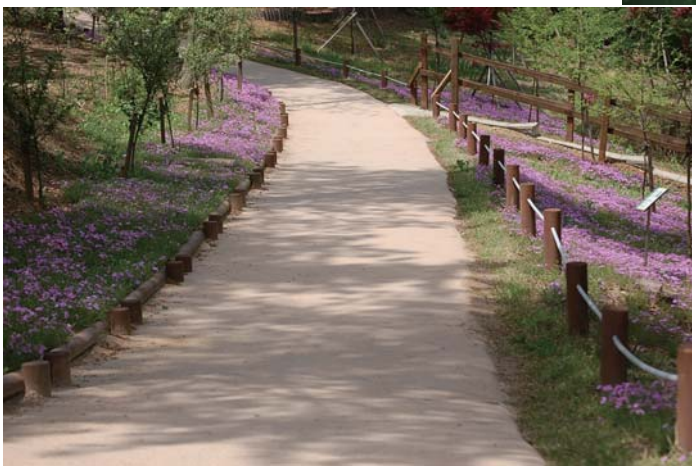
그 아버지가 수목원 대표이신 임진호 사장님이시고 아들은 이런 저런 미술전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구필 화가 임형재 화가이다. 지금도 임진호 사장님은 매표소에서 친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계시고 아들인 임형재 화가는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자택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 주기도 한다. 수목원은 온실식물원, 수생식물원, 연꽃정원, 연산홍길, 돌탑분수대, 암석원, 폭포, 자연생태원, 야생화원, 전망대, 잔디광장과 부대시설로는 미술관, 전통가구전시관, 카페테리아 '메이', 쉼터 등이 있어 꽃과 나무, 이런저런 경치와 작품도 감상하고 식사도 하며 휴식도 취할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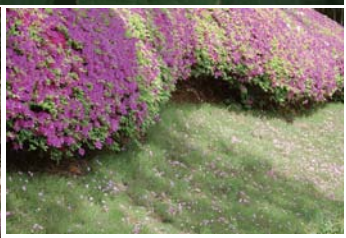




사진도 찍고 간간이 쉬기 좋은 그늘에 앉기도 하며 천천히 둘러보는데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참 아담하면서도 정겨운 수목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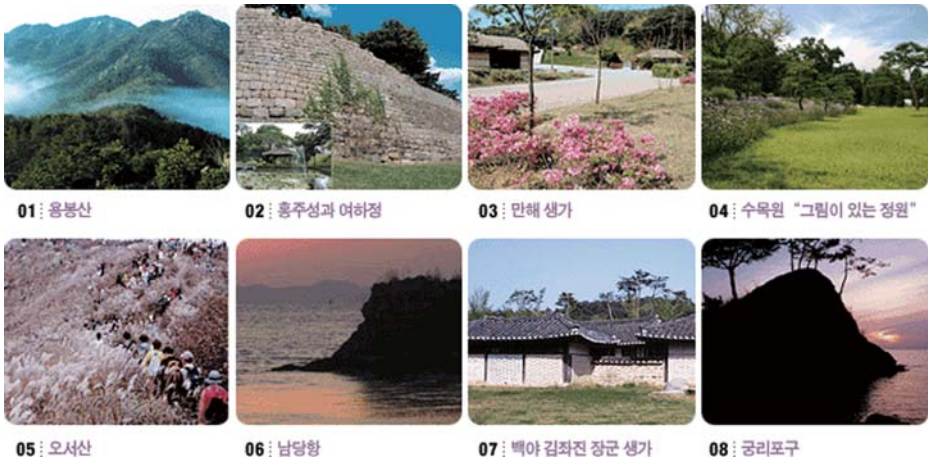
임형재 구필화가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 ▶

더 갤러리(The gallery)는 임형재 구필화가의 작품이 사계절 전시되어 있으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유치하여 전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은 조형작품도 전시하고 있어 자연속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 낸, 아니 지금도 끝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랑의 수목원 '그림이 있는 정원'
경치보다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이곳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그림이 있는 정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홍성 8경



01 용봉산 | 02 홍주성과 여하정 | 03 만해 생가 | 04 수목원 "그림이 있는 정원"

05 오서산 | 06 남당항 | 07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 08 궁리포구

4월 초에 취재했더니 아직 날씨가 따뜻하지 않은 탓에 예쁜 꽃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지금은 예쁜 꽃들도 마음껏 자태를 뽐내고 있겠지? 주변에 맛있는 산채정식을 비롯하여 전문식당도 많으니 이왕이면 입도 행복하게 만들면 금상첨화다. *with*





보건대 기독교 동아리 탐방

글 · 심재성 기자

학교 기독교 동아리 탐방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보건대학의 기독교 동아리 '보건대 DFC'를 찾아보았다. 사단법인 '제자들선교회(DFC:Disciples for Christ)'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캠퍼스 가운데서 돕기 위해 세워진 초교파 대학생선교단체로 현재 전국의 대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보건대 DFC 회장 이초롱 자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먼저 본인 소개와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샬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대 유아교육과 09학번 이초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건대 DFC 동아리 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DFC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1992년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에 헌신된 50여 명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에 따라,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을 토대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돕기 위하여,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신된 삶을 자원하여 모인 동아리입니다.

Q. 보건대 DFC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DFC가 처음 출발하던 1992년 4월 25일에 보건대 DFC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동아리의 조직 구성과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직구성은 책임가지장, 가지장, 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동아리방과, 대전역 근처 DFC센터에서 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모임은 아침모임(QT), 점심모임(전도,찬양,성경읽기), 채플, 디스커버리, 가지모임(성경공부) 등이 있어요. 아침모임은 매일 8시에서 8시50분까지 하고 있고요, 점심모임은 화요일과 금요일만 점심 1시에서 1시5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은 때에 따라, 성경읽기, 찬양모임, 전도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플과 디스커버리는 모두 대전역 근처에 있는 DFC센터에서 드리게 됩니다. 채플은 화요일 6시30분에 동부 채플이라고 대전대, 혜천대, 배재대, 보건대, 한남대, 우송대, 우송정보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디스커버리는 금요일에 드리고요, 기존의 동부 대학들과 서부의 충남대, 건양대, 한밭대, 청양대, 공주대, 목원대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지모임은 가지장(선배)에게 가지원(신입생)이 매칭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을 맞춰서 정해가지고, DFC교재인 '마당 교재'를 가지고 가지모임(성경공부)를 하게 됩니다.



Q. DFC가 자랑하고픈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성경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며, 섬기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인 DFC 모임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 학사일정이 바빠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훈련과,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Q. 동아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지역교회와 더불어 땅 끝까지’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Q. 이 글을 읽어보게 될 분들과 함께 하고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캠퍼스 안에 제자 낳는 제자가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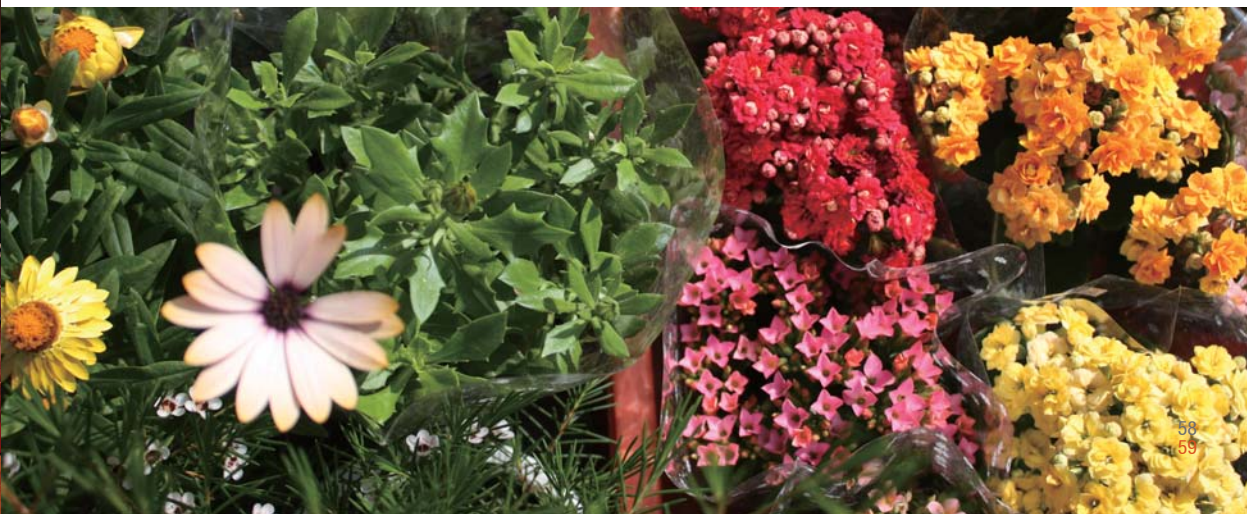
인터뷰 시기가 대학의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성심껏 임해주고 협조해준 보건대 DFC 회장 이초롱 자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학가 제자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된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길 함께 기도한다. *with*



향기가득한 꽃동

하늘에서 투명하고 맑은 선율이 내려와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따뜻한 입김으로 생명을 깨우는 계절이 왔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걷던 계절이 물러가고, 느림의 마음을 봄향기에 맡기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계절. 걷다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춰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새싹이며 어린 꽃들이 행복함을 품게 한다. 여기 우리가 사는 곳 가양동에도 소리 없이 피어나는 꽃들이 가득한 곳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화원들은 한 눈에 여러 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위에 있는 화원들을 찾아가 보았다.

글, 사진 · 신신혜 기자









빙그레 화원

가양중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빙그레 꽃집〉은 가양동의 터줏대감이라 해도 될 만큼 오래된 곳이다. 큼지막하게 써 있는 간판 아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식물원을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많은 나무들이며 꽃들이 있다. 그 사이에 미소만큼이나 따뜻한 인상의 여사장님이 계시는데 참 밝게 맞아주신다. 봄이면 사람들이 화원에 발걸음이 많다보니 그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 하시단다. 갖가지 봄꽃들이 가득하고 사계절 모두 볼 수 있는 화초들이며 귀한 식물들도 눈에 띄었다. 거실 한 쪽에 작은 꽃들을 세,네 개 정도 모아놓고 보고 싶은 분들 한 번 화원에 들러 눈 가득 마음 가득 아름다운 행복을 사 보는 게 어떨까.



희원 플라워



〈희원 플라워〉는 비래프라자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길가 양쪽에 길게 진열되어 있는 작은 화초들이며 봄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한참을 내려다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흥얼거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꽃들. 행복하다. 이 〈희원 플라워〉는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수줍게 반겨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참 좋아보였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꽃집 안은 길가에 놓여진 꽃보다 더 많은 행복함을 주었다. 이 길을 지나가다 길가에 진열되어 있는 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기자기한 꽃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발걸음을 옮겨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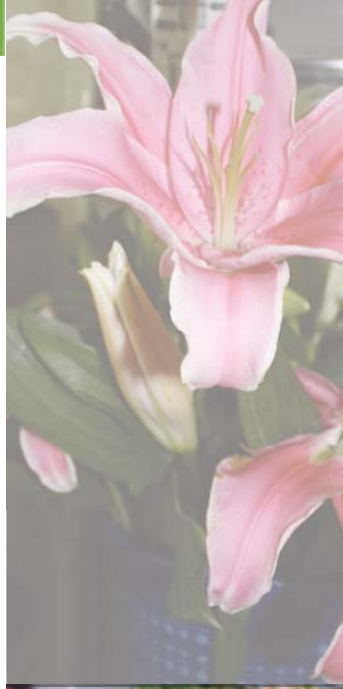


꽃수레

동대전 초등학교 후문쪽에서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꽃수레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연세가 좀 있어보이는 여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꽃가게다. 꽃수레 위에 조그마하게 양생화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다는 느낌이 든다. 꽃가게 앞에는 여러 가지 야생화를 진열해 놓으셔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끔 해 놓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석에 여러 화초들이며 귀한 식물들을 장식해 놓았다. 작은 연못을 연상케하는 연못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인장도 볼 수 있다. 또한 사랑잉꼬도 볼 수있다. 아이들은 하교길에 이 꽃수레에서 볼 수 있는 강아지와 새를 보고 지나간다고 한다. 꽃보다 마음을 얻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꽃수레가 아닌가 한다.





창포 플라워

예지유치원 앞에 있는 창포 플라워는 젊은 여자 사장님이 운영을 한다. 사장님 만큼이나 아기자기한 예쁜꽃들이 먼저 반기는 곳이다. 다른 꽃집에서 볼 수 없는 허브꽃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야생화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꽃은 꼭 향나무와 가을에 볼 수 있는 꽃들을 접목시킨 듯 했는데 의외로 허브였다. 햇빛이 잘 드는 곳마다. 어린 꽃들을 내 놓아 더 눈길이 가는 곳이다. 창포플라워 안으로 들어가면 예쁘게 잘 꾸며놓았다. 화분이며 여러 가지 장식을 해 놓으셨는데 한 참을 아기처럼 쳐다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꽃집이라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꽃을 좋아하다보니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아침마다 보는 꽃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 아기자기한 화분과 꽃을 원한다면 이 곳으로 발걸음 옮겨도 좋다. *with*











하동 섬진강가에 매화가 필 무렵에도
몽골의 산하는 여전히 시리다.
모진 바람과 바람에 흩날리는 눈만이
파란 하늘 아래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춥고 시린 것은 자연의 일상이며
겉으로 드러난 겨울의 껍질일 뿐
그곳은 따뜻하다.

주일학교 예배 도중 해맑은 웃음으로 뒤돌아 본 아이는
샤르하드 은혜교회의 꿈이며 미래이다.
한 낮 온도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서도 꽃을 틔운 선인장은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운 향기이다.

우리는 이렇게 황무함에서 희망을 보고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낀다.
세상에는 추위에서 추위를
황무함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올해 6살 된 '저리거'다. 저리거는 은혜교회 어린이 찬양단원인 초등학교 4학년 누나와 함께 예배에 빠짐이 없다. 부모님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두 남매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 *with*

이단 탐구_신천지(2)

신천지의 미혹 전략과 구별법

글 · 이승태 목사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성 교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모든 건전한 교단의 교회들이 강단과 교회정책으로 그 이단성을 폭로하며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전중부교회도 담임목사님께서 자주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교회는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는 노란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 제1주차장, 그리고 제2주차장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은밀히 성도에게 접근하고 교회에 침투하여 신앙을 흔드는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미혹케 할까? 「기독교 이단 대책 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천지 10단계 기성교회 미혹전략을 소개한다.



신천지 10단계 기성 교인 미혹 전략

신천지는 기성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집단이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기성 교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한다. 자칭 '추수꾼'이라 칭한다. 이들의 10단계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기성 교회에 성도(추수꾼)로 위장 침투한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팀을 이루고 있는 제3의 추수꾼에게 추수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넘겨 받은 제3의 추수꾼은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해서 추수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유인하며 친교를 맺는다.

2단계 : 복음방 특별교육

복음방(구명칭 : 다락방 교육/선교방 교육) 개설, 특별히 제작한 교재로 추수꾼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개월간 암기 및 스피치 실기 특강을 이수한다. 이때 (기존 기독교 서적을 사용하기도 한다) 배운 교재를 복음방 교재로 사용하고 교육 담당자를 선교사 내지 전도사로 호칭하며 2인1조로 활동한다.

3단계 : 복음방 교재 1,2과 까지의 내용을 수회 교육한다.

복음방 개설한 선교사/ 전도사가 각종 구실을 붙여서 학원에 인도한다. 단 복음방 시작에서 학원에 인도되는 것을 외부 및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고 성구를 들먹이면서 '입막음 교육'을 반복한다.

4단계 : 5–6개월 코스 시온 무료 성경 신학원에 입학시킨다.

5단계 : 시온 성경 신학원에서의 교육내용

1)기존의 일반 교회를 '바벨론', '마귀의 소굴' 이라고 반복적으로 교육시킨다.

2)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목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사단의 자식', '거짓 목자' 라고 반복 교육 시킨다.

3)월,화,목,금 주4회 /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1일 3회 반복 강의 매일 교육 내용을 일일 숙제라는 이름으로 쪽지 시험을 실시하여 반복 세뇌시킨다.

4)수료시험 100문제를 학원 수료 시험으로 치르게 하여 교육생의 마음에 철저히 각인(刻印)이 되도록 하고 있다.

6단계 : 계시록 강의

6개월 과정 시온성경신학원을 수료할 즈음에 '계시록'을 가르친다 이때 다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신천지에서는 걸러낼 염소와 순한 양을 구분하는 단계이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염소는 퇴출되기 마련"이라면서 5~6개월간 신학원(교육간)에서 교육받은 자가 신천지로 넘어(유월)가지 않으려고 하면 회유와 설득에 전력을 기울인다. 유월이 확실시 되는 순한 양들에게 '보혜사 성령' 이미지와 신천지 교리를 집중적으로 주입을 시킨다. 이때 중점적으로 각인시키는 성구는 계20:12-15인데 그 핵심 내용은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이다.

7단계 : 신천지 소속 교회(12지파 중 한 곳)로 유월(전입)

8단계 : 새신자 교육

1개월간 주4일+수요일+일요일에 1개월 간에 걸쳐 일일 4시간가량 새신자 교육을 받는다 (이만희 보혜사 위상 / 신천지 역사 / 위계질서 / 예법 등).

9단계 ; 신천지 교회에 등록

1개월 새신자 교육을 끝내면 신천지 교회에 등록이 된다. 신천지 교회에 등록된 신자도 1개월에 한번씩 '신앙점검' 구실을 붙여 반드시 시험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신천지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

10단계 :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본부 등록

가)전도 실적,

나)수요예배, 주일예배의 출석

다)서울 과천에 건축하는 성전에 내 자리 마련본부 건축헌금과 각 지역 성전건축헌금 및 선교헌금, 십일조, 주정헌금, 체육회비 등의 납부실적이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본부' 에 등록을 좌우,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본부'에 등록되는 명부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10단계 신천지 전략을 잘 알고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는 숨기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는 사람.
2. 성도들끼리 만나서 목사에 대하여 은근히 불평을 터트리며 목사의 성경지식에 회의하게 하는 사람.
3. 목사에게는 숨기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
4. 갑자기 나타나 열심히 봉사해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5. 봉사는 열심히 하되 그 얼굴에 기쁨보다는 강박관념이 나타나는 사람.
6. 대화 중에 무심결에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충진, 길예비 사자, 하나님의 비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조건 중에 3가지 이상 일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에서 침투한 사람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신앙의 전력을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에 알려야 한다. *with*



교회와 함께한 신앙과 삶

글 · 최정은 기자



–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성경입니다"

– 살아오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교회를 다녀가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합니다"

–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구원의 은인인 조의선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인터뷰 내내 교회와 신앙을 빼고는 다른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며 내심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기대했던 기자로서는 다소간의 당황스러움도 없지는 않았다.

뭔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야 간증문은 제 맛(?)이 나는 건데... 하지만 이내 기자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장로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무수한 일들 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이었을 테니 말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50:15)

이인창 장로님은 평안북도 박천군 맹중리에서 태어나 4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14살 터울의 형님을 따라 일가족 모두 작은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만주 안동(지금의 단동)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18세 되던 해 1950년 4월 14일에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어 함경북도 회령의 회령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인민군 생활 6개월, 거제도 반공포로 생활 3년, 한국군 생활 3년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격변기에 숨 쉴 틈 없는 고난의 청년시절을 보내게 된다.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북한에 있는 동안 '기독교는 아편이요, 침략과 착취의 도구'라고 하는 공산당 교육에 선입관이 확고해진 상태였기에 소대장으로 모시던 직속 상관인 전은택 중위가 오래도록 교회에 나가자고 권해왔으나 그때마다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56년 10월(24세) 제대 후, 전은택 중위의 할머니 조의선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강권에 못이겨 마지못해 은행동 교회에 송아지 코 꿰어 끌려 다니듯 출석하게 된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중부교회와의 첫 인연이 되었다.

그 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즈음에 성경말씀을 통하여(요3:16, 요5:24) 자연스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장로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 준 은인이신 조의선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의선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장로님께는 가장 슬펐던 일로 기억하고 계신다.



◀조의선권사님(앞줄, 맨 오른쪽)을모시고 가족사진(1976년)

이 때부터 비로소 교회와 신앙이 장로님 삶의 중심으로 깊이 자리하게 된다.
교회 초창기에 민가를 개조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벽만 있고, 지붕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뜨거울까봐 걱정, 날이 흐리면 비가 올까봐 걱정 이었지만 정작 예배시간만 되면 어디에선가 구름이 몰려와서 서늘하게 해주었고, 3개월 동안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비 한번 맞지 않고 입당예배를 드리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일, 은행동에서 1차 교회 건축할 때 기초가 되는 자갈돌을 오로지 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대전천에서 주어다가 교회 건축한 일, 1986년 10월 12일 총동원 주일에 초청 목표가 4,000명이었는데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전도하여(당시 송경호 집사님은 1,744명 전도) 당일 출석인원 10,500명이 되어 온 성도들이 큰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넘쳤던 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셨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42:5)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자 결단하신 장로님께선 성도들과 교역자들께 권면과 부탁의 말씀 또한 잊지 않으셨다.

"사랑은 기독교의 원리이자 진리이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다섯 가지 실천구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봉사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의 직책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명입니다. 교인들이 백 명이면 눈이 이백이고 귀가 이백이므로 본의 아니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팔과 등대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온 교역자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남(이원명장로, 이원길집사, 이승주) 1녀(이혜옥_계룡시 양정교회 전도사)에 손자 4명, 손녀 3명의 일가를 이루시고 다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장로님은 앞으로의 비전 또는 포부가 있으신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완곡한 답변을 하셨지만, 기자가 보기에는 장로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이 확실했다.

구원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언젠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게 될 당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시는 장로님, 막연한 꿈의 소유자가 아닌 확고부동한 비전의 소유자이신 장로님, 그런 장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정결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with*



하나님의 스카웃

글 · 최은애 사모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사연이 있는 찬송이다. 결혼문제를 놓고 작정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하나님! 이 사람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셨다. 나의 죄성과 본성을 비추시며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회개기도를 요구하셨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장 절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시키셨다. 철저히 나를 드러내시며 깨닫게 하시는 기도였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부어 주시는 기도였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진 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거저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받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모세계에 '입문'시키셨다.



길진 않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할 때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고 힘들 때에는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나를 낱낱이 살펴보시는 세밀한 눈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모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문하면 한 없이 교만하고 약하고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오히려 이 자리가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간택(?)해준 남편 목사님께 고맙기까지 하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자리, 사모의 자리는 험난하고 힘들기만 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자족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자리이다.

이제 출발선에서 막 한 발을 떼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뛰시는 경주이기에 거룩한 형상의 주님 닮을 때까지 감독 되어 주신 하나님의 싸인을 잘 바라보며 완주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언젠가 천국의 문턱에서 눈물어린 찬송을 다시 부르고 싶다. *with*



최은애 사모

이석환 목사님과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슬하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두 자녀 재하(초4), 재언(초1)이가 있다. 타지방 사역지로는 대전이 처음이지만 목사님과 함께 중부교회와 대전을 품고 온 힘을 다해 섬기고자하는 비전이 있다.

출발! 배움, 나눔, 앎 의 현장!





제자반, 사역반
제1기 사역훈련이 주일반은 3월 6일부터 화요반은 3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제2기 제자반도 3월 8일 출발하였다.

목자양육학교
2011년 목자양육학교가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1,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목자들의 영적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실버대학
시니어 신앙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장 대전중부교회 실버대학이 지난 3월 10일 개강하였다.

아기학교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유아와 엄마가 함께 하는 아기학교가 지난 3월 17일 개강하였다.

교리생활공부
평신도 교리생활공부가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3월 8일 개강, 1년 2학기의 과정을 출발하였다.

가정사역학교
'기독교 인간 이해와 상담 실제'를 주제로 한 가정사역학교가 3월 8일부터 시작되어 6월 17일까지 총 13주간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가 3월 19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7주간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전도학교
전도학교가 3월 24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주간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LMTC 제12기 개강
LMTC 제12기가 3월 31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1년 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전교인 등반대회

지난 3월 1일에 5남 전도회 주최로 전교인 등반대회가 열렸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함께 바랑산(대둔산 인근)에 올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며 연초 세웠던 각자의 소원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이 상쾌한 산행을 통해 건강 축복 듬뿍 받아 진솔한 크리스찬의 삶을 소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으리라 믿는다.



큰숲 어린이집 개원

중부교회 선교원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지난 5월 6일 '큰숲 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애써 주신 결과이다. 이번 '큰숲 어린이집'의 개원을 통해, 역사와 전통의 중부선교원이 앞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원감님 이하 어린이집 가족들은 사명보다 소명을 갖고 본질을 잊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가양에서 으뜸가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본당에 이어 1층, 지하 리모델링 시작

2010년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본당에 이어 1층 소예배실, 사무실, 교역자실, 당회실과 지하의 식당, 각 부서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더불어 2주차장도 새롭게 단장하게 된다.

본당을 리모델링할 때는 매우 더운 여름 기간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기도와 인내로 훌륭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냈었다. 이번 1층과 지하의 리모델링도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식당을 사용할 수 없어 당분간 꼭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 김밥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베데스다 예배, 찬양대 연습 등 불편한 일이 많지만 다음 세대가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 것을 확신한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교회의 모든 시설이 새롭게 되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50년을 이끌어 갈 기반이 될 것이다. 공사 기간 중에 안전사고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것이다.

실버대학 발표회

우리 교회가 주관하여 교우는 물론 이웃의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실버대학이 나날이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처음 실버대학을 개강했을 때보다 수업 내용이나 프로그램, 참여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 방학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실버대학은 매주 목요일 여러 봉사자와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춤과, 현대무용과, 종이접기과, 서예과, 한글과, 장기과, 영어과, 탁구과, 음악과 등으로 전공 수업이 있으며, 계절별로 테마 여행, 명사초청 강연 등으로 향학의 열정을 더해 가고 있다.



실버대학 학과 전시회

5월 8일 오후예배에 실버대학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든 성도 앞에서 자랑했는데, 무대에서 발표할 수 없는 학과는 본당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여 배운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이번 발표회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삶의 열정이 곧 나이임을 보여 주었고, 실버대학 학생 모든 분들이 20대 청년으로 돌아 간 것을 확인하였다.





실버대학이 이웃과 교회에 더욱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서 강의실이 넘쳐나도록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을 바란다.

2011 전교인 체육대회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는 5월 10일 전국적으로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온다고 계속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날은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각 교구별로 몇 주 전부터 극비리에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 과정이 과히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체육대회 아침부터 흐리기는 했지만 우려한 소나기는 잠시 기다려 주었고, 즐겁지만 양보할 수 없는 불꽃 튀는 경쟁의 체육대회를 이어갔다. 1교구는 '예수님의 일생'을 주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2교구는 '전통혼례'를 재현하였는데 실물 크기의 황소가 등장하여 신랑은 황소, 신부는 가마를 타고 입장하였다. 3교구는 '홍해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도'라는 주제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멋진 음향과 함께 연출하였다.

대회 종목으로는 발목풍선터트리기, 물동이이고달리기, 장애물릴레이, 피라미드3각, 색판뒤집기, 신발멀리던지기, 탑위로골인, 봉릴레이, 남자축구, 공릴레이, 통굴리기, 족구, 여자축구, 400M계주, 줄다리기 등이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체의 에너지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보여준 2011년 체육대회는 경쟁과 등수 보다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기쁨을 모두 누린 하루였다.















"우리교회 새식구를 소개합니다."



임규혁 목사님(고등부, LMTC)

서울에서 나고 자라 용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IGSL(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에서 신학석사를 거쳐 2008년 독립교회 연합 목사를 안수 받았다. 1996년 대학졸업 후 현재까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간사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한국대학생선교회 대전지구 부대표, 한남대학교 캠퍼스 디렉터, GCTC 트레이너로 섬기고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고등부와 대전 LMTC를 담당하고 있다. 고등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를 배출하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계시다. 가족으로는 아내 박경민 사모와 세 아들 건호(초6), 순호(초5), 진호(6살)가 있다.



이석환 목사님(1교구)

부산 해운대지역의 어머니교회인 해운대교회(설립74년)에서 자라 모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부산신학교, 경성대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성경주해전공으로 신학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었다. 바른 성경해석이 바른 신앙을 가져온다고 믿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섬기는 사역을 꿈꾸고 있다. 송정제일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면서 제자훈련사역과 새가족사역, 청년사역을 하였다. 특히 제자훈련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족으로는 청소년시절부터 함께 자란 모교회 담임목사님의 막내딸 최은애 사모와 재하(초4), 재언(초1)이 두 아들을 두었다.



홍대훈 전도사님(유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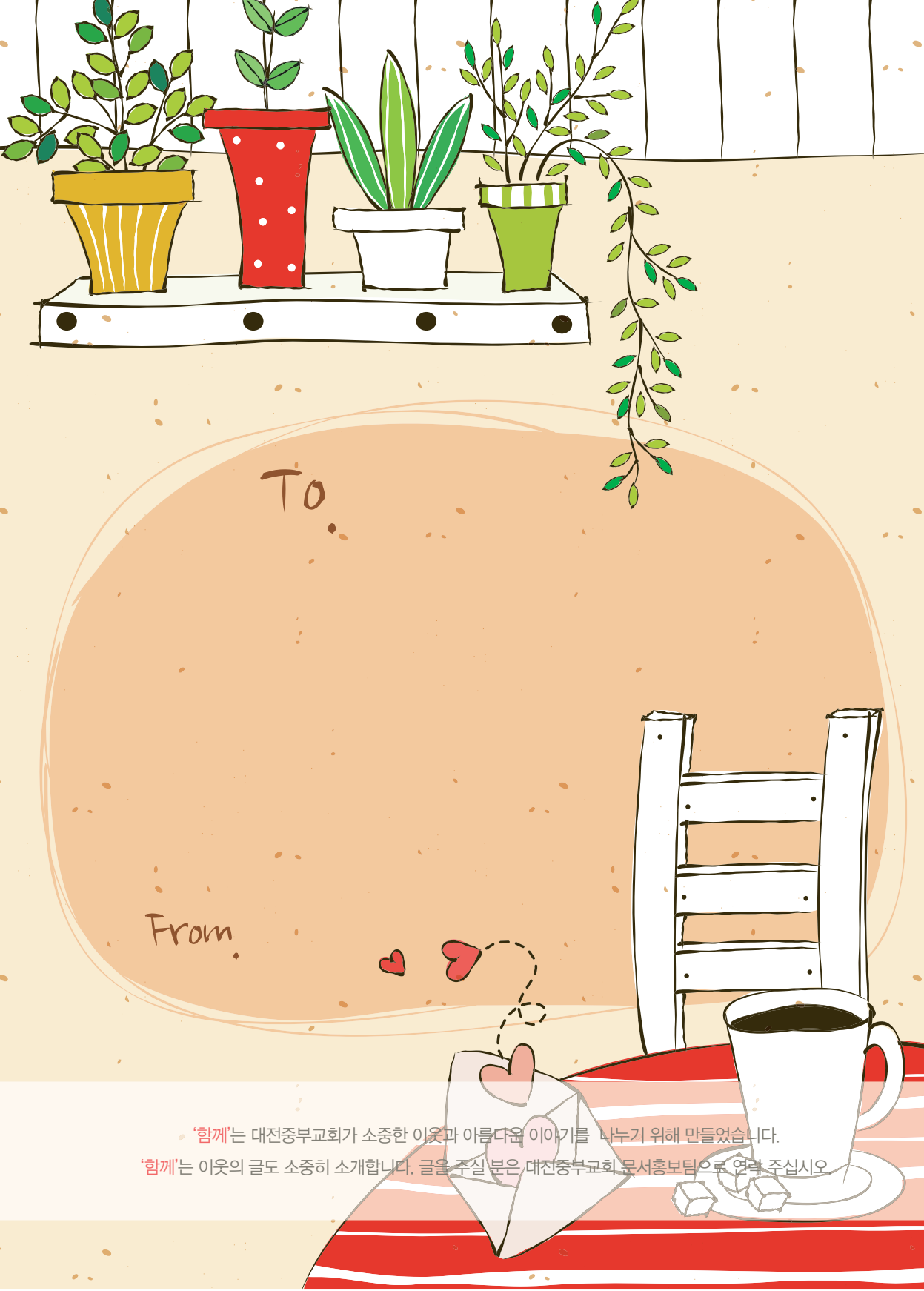
한국교원대학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총신대신대원 1학년 재학 중이다.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고 있다. 다음은 전도사님이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씀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 특히 유년부의 부흥(영적, 양적)을 위해 다 같이 기도로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 볼 때까지!!' 위대한 중부교회 파이팅!!"



박연희 사무 간사님

박연희 간사님은 그동안 우리 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겨 오시다 이번에 사무 간사직을 맡게 되었다. 간사님은 현재 아이노스 찬양단과 예사랑 중창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매주 주일 3부 예배에서 성경봉독을 담당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기독교방송 아나운서로도 손색이 없으시다. 다음은 간사님의 기도제목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귀한 일을 허락하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함께'는 대전중부교회가 소중한 이웃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함께'는 이웃의 글도 소중히 소개합니다. 글을 주실 분은 대전중부교회 문서홍보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내 솜씨, 우리 가족!

이효진(유치부, 7세 경배와 찬양)





노란 나비를 좋아하는 효진이는(유치부.7세) 언니 예진(유년부.9세)이와 경배와 찬양팀에서 활동한다. 아빠(이경호 집사.2030.요한목장) 엄마(송이순 집사.2030.요한목장)의 조용한 성품을 닮아 차분하지만 율동과 찬양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참 밝은 아이다. 이경호 집사는 유년부에서 송이순 집사는 유치부와 2030 디딤돌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다. 또한 이경호 집사는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큰형은 목포에서 둘째 형은 제주도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다. 부모 모두 믿음이 단단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예진, 효진이 또한 조용하지만 잔잔한 믿음의 향기가 퍼지는 축복된 모습이 늘 가득하다. *with*

2011년
사랑의 선교바자회
행복의 미소를 전합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픈 데도 없이 씩씩하게 돌아 왔습니다.
김밥 각설이, 굴비 각설이, 참기름 각설이는 물론이고
가수 각설이, 이상한 총 각설이, 바람잡이 각설이, 목사님 각설이
까지... 우리도 한번 거방지게 놀아 봅시다.
자~ 모여나 보세, 놀아나 보세, 먹어나 보세
이게 이웃끼리 사는 맛 아니겠시유~

- 일시 : 2011년 4월 27일(금)~28일(토)
- 장소 : 대전중부교회 1주차장
- 같이 하시는 분 : 교우와 이웃은 누구나 가능
- 바자회 품목 : 반찬, 간식, 건어물, 의류, 이불 생필품, 과일, 야채, 음식코너 등